

시민들의 발 '지하철 기관사'

서울메트로 지하철 기관사 송기석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하철을 이용할까요? 2016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의 수는 무려 29억 2736만 명입니다. 하루 평균 약 800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수많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기관사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해 본 학생은 많을지 몰라도 지하철 기관사를 본 학생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지하철 기관사의 모습만큼이나 지하철 기관사가 하는 일, 지하철 기관사가 되기 위한 방법 등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요.

송기석 서울메트로 지하철 기관사는 “지하철 기관사는 지하철의 최전선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기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지하철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 지하철 기관사가 하는 일은?

차량 상태 점검하고 주변 상황 체크하며 안전 운행에 총력

승무적합성 검사 → 운행의 특이사항이나 지시사항 숙지 → 차량 상태 점검
→ 주변 상황 수시로 확인하며 지하철 운행

지하철 기관사가 출근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승무적합성 검사입니다. 지하철을 잘 운전할 수 있는 건강상태인지를 확인받는 것이지요. 수많은 시민이 탑승하는 지하철을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지하철 기관사의 건강상태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운행의 특이사항이나 지시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숙지합니다.

다음으로 지하철에 올라타 차량 상태, 각종 기기, 안전장치 등의 기능을 점검합니다. 혹시라도 지하철 운행에 문제가 생긴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지하철 기관사의 차량점검은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하철 차량 점검까지 끝나면 운행을 시작합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속도계, 열차의 전방과 후방, 선로상태 등을 확인하며 안전운행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수많은 시민을 싣고 달리는 지하철.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알겠지요?

▼ **지하철 기관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책임감과 사명감 +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침착함 + 집중력**

승객을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까지 운송해야
▶사명감과 책임감 필수!

수많은 승객, 돌발 상황 多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침착하게 대응!

장시간 단조로운 풍경을 달리는 지하철
▶집중력 중요!

지하철에 탄 승객들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목적지를 향해갑니다. 그 중에는 입시시험을 치러가는 학생이나, 친한 친구의 병문안을 가는 사람 처럼 아주 중요한 일정 때문에 지하철을 탄 사람도 있겠지요. 이들을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까지 운송해주어야 하는 지하철 기관사는 반드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지요.

또 지하철에는 아주 많은 승객이 탑승해있고 지하철역에도 수많은 사람이 오가기 때문에 각종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도난사고가 일어나거나 응급환자가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철로에 사람이 떨어지는 등 매우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요. 따라서 지하철 기관사는 이러한 돌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땅 밑에서 늘 단조로운 풍경을 보며 달리는 지하철. 따라서 지하철 기관사에게는 고도의 집중력도 필수입니다. 지하철 기관사들은 집중

력이 흐트러질 때 다시 집중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송기석 서울메트로 지하철 기관사는 기관실 내의 각종 설비들을 보고 만지거나, 승하차 상황을 화면으로 확인하면서 ‘감속’, ‘승하차 확인’ 등을 큰소리로 외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기관사는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 **지하철 기관사가 되려면?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해야**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 필수!
철도운영기관에 취직해 운전 실무 실습 과정 수료

지하철 기관사가 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뒤, 반드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음의 과정을 보세요.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 과정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 필기시험
→ 기능시험

먼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신체검사 지정병원 및 적성검사기관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지요. 이 단계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

서 △관련법규 △전문이론교육 △기능교육 등의 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이수까지 마치면 필기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총 5개 과목, 즉 △철도관련법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전기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모의운전을 하면서 진행되는 기능시험을 봅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총 5개 과목, 즉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 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비상시 조치 등의 과목에서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입니다.

이후 철도운영기관에 취직해 운전 실무 실습 과정을 수료하고, 제2종 전 기차량 운전면허에 운전 가능 구간을 정식으로 등록해주면 드디어 지하철 기관사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기관사가 되는 과정, 그리 간단하지 않지요. 시민의 발인 지하철 기관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이 과정을 꼼꼼히 숙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지하철 기관사,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감!

동이 트는 새벽부터 자정을 넘긴 늦은 밤까지 365일 시민들의 발이 되어 끊임없이 운행되어야 하는 지하철. 이 지하철을 운행하는 지하철 기관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책임감을 필수로 갖춰야 하는 직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기석 서울메트로 지하철 기관사는 지하철 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지하철은 한 정거장 당 운행구간이 짧고, 앞차와의 간격의 좁기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에 늘 유의해야 하며,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에 지하철을 정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합니다.

내 자신의 안위보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하는 것에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껴야 즐겁게 임할 수 있는 직업, 지하철 기관사. 지하철 기관사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시민의 안전에 대한 지하철 기관사의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